

통일 칼럼

악화된 북한 인권

유엔이 10년 만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종합한 보고서를 내놔다. 탈북민 300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와 통제는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남한 콘텐츠의 시청과 유포에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북한 인권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주민들은 억압과 공포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어느 탈북민이 유엔총회 연단에 섰다. 영양실조로 아버지를 잃고, 음식을 찾아 나선 어머니를 기다려야 했던 기억을 힘겹게 털어놓았다. 살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지만, 곧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됐음을 밝히는 대목에선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중국에서의 첫날 밤, 언니도 납치돼 성폭력을 당했다. 2023년 목선을 타고 동해로 탈북한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배포하다 처형된 친구들 이야기를 전했다. 친구 세 명이 처형됐는데 두 명은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였다. 한 명은 겨우 19살이었다.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탈북민들

이 북한 인권 실태를 직접 증언한 자리였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탈북민 3백 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공식 인정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후속 보고서로, 지난 10년 동안 북한 당국의 억압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사형 집행이 더욱 늘어났다고 했다. 특히 유엔은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등 외부 문화의 유입을 엄격히 금지한 이후 처형 건수가 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북한 인권실태 증언에 참여한 한 탈북민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검열이나, 남한 문화 통제가 급

격히 강화되기 시작됐다고 전했다. 탈북민들의 증언은, 외신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영국 BBC 방송이 최근 공개한 북한에서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방영했다. 이 스마트폰에서 '오피' 같은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북한식 표현으로 자동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돌려 봤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까지 공개적으로 수감을 채워 체포한 뒤 처벌했다. 역시 같은 이유로 공개 재판에 세워져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소년들의 모습도 BBC에 의해 공개됐다. 유엔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유엔과

인터뷰한 탈북민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 기간 식량 부족이 심각해져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탈북민들은 김정은 집권 초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북한의 상황은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더욱 나빠졌다고 말한다. 국경 지역에 철조망과 CCTV가 설치됐다. 북한 주민들은 강에서 물을 건너나 빨래를 하는 것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개인적인 필수역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서도 북한 병사들의 인권과 생명은 도외시됐다. 북한 당국은 파병 당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러시아로 병사들을 보냈다. 전장에서 투항 대신 자폭하는 병사들의 행적을 치켜세우는 등 사실상 '인간 방패'로 활용한 것이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 인권의 잃어버린 10년을 밝히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잔인한 정도의 억압과 공포를 한층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복규
논설위원

독자재언

새벽의 구조 요청, 갈 곳 없는 청소년을 품는 일

새벽 4시 한통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친구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갈 곳이 없어요" 전화가 너머의 목소리는 중화생 아이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부모는 먼 지역에 있어 당장 올 수 없었고,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의 새벽은 차갑기만 하다. 이런 신고는 의외로 낯설지 않다. 가정 갈등이나 친구 집 체류 중 다름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 새벽같이 홀로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경찰에게 이들은 "문제야"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보호기관과 연락한다.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 협력해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다. 도시든 시골이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구조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때로는 아이가 보호시설 연계를 거부하기도 한다. 그럴

때 경찰은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감으로 접근한다.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길 기다린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혼내지 않아" 이런 한마디가 청소년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보호의 손을 잡게 만든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단순하다.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보호가 먼저다. 누군가의 신고 한 통 어린이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결을 지켜주는 일이다. 새벽의 구조 요청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그 아이를 누가 품어줄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경찰은 주저하지 않는다. 고창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이 위기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민수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화성 탐사선 신고 발사되는 ‘뉴 글렌’ 로켓



블루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38번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설

핵추진잠수함으로 균형 외교

한국이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체(APEC)를 통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가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통합되는 조치라며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고 11년만의 시진핑 방한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과 겹치면서 복잡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

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도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절충하기 어려운 장면으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대립적 입장은 여전히 뚜렷했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모두 외교적 균형을 피했지만, 갈등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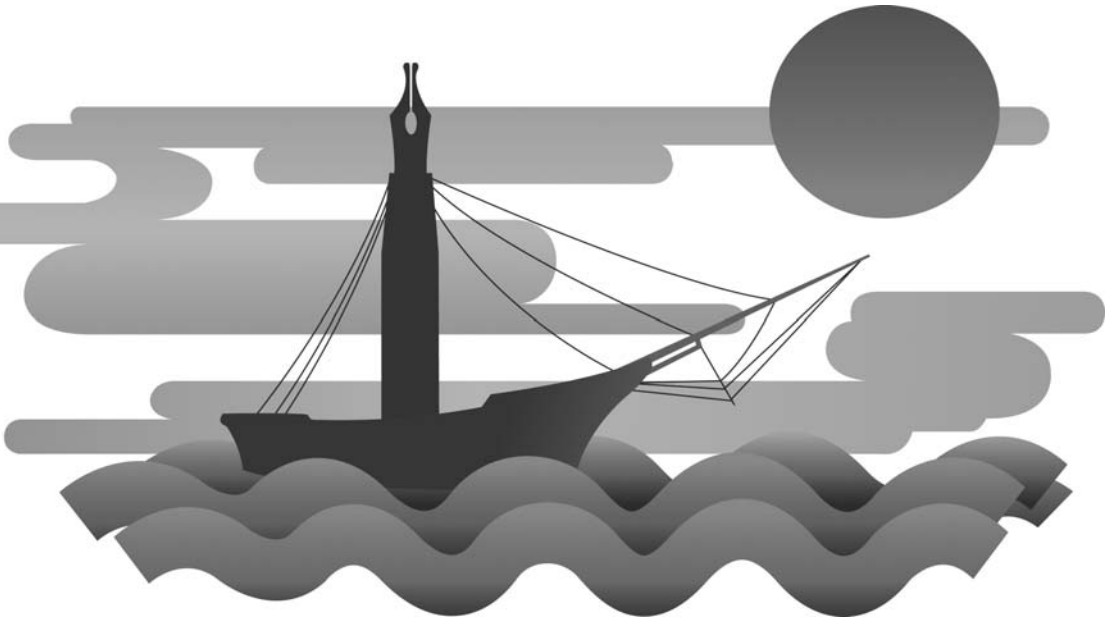
한중 통화스와프

최근 한중 두 정상은 경제 협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고,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에 맞는 한·중 경제 관계 발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미 부자가 크게 늘더라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의 균형이 필요한 중국도 화답했다.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먼저 2030년까지 작동할 5년

단기,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를 다시 맺었다. 최근 단료된 걸 연장한 건데, 양국 간 기업 교류와 환율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10년을 맞는 한중 FTA를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할 2단계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 간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할 틀을 만들고, 서비스와 기업 교류를 확대하는 등 양해각서 6건도 체결했다. 정부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이어져 온 한한령 문제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향후 실무 소통으로 조율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회토류 등 자원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